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on Life-Satisfaction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겸임교수 김지현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 Gi Hyun K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on the life-satisfaction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The 527 mothers(234 employed, and 277 unemployed), with a child under 7 years old,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mployment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 number of children, family income,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parent-child relations, preparedness for parental role conflict, and life-satisfaction. Second, for employed mothers, life-satisfaction ha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various factors, including family income, fathers' educational level,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whereas, that of unemployed mothers ha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Third, for employed mothers, life-satisfaction was affected by several factors, such as family income, parental role satisfaction, parent-child relations, and preparedness for parental role conflict; however, unemployed mothers were affected by the number of children, the fathers' educational level, and self-confidence relating to the parental role, general satisfaction, and preparedness for parental role conflict.

**주제어(Key Words)** :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부모역할만족도(parental role satisfaction), 삶의 만족도(life-satisfaction)

## I. 서론

모든 인간에게 행복은 중요한 삶의 목표이다. 하지만,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지각이면서 또한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서적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명확한 행복의 개념은 불가능하며 단지 이를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설명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Diener & Diener, 1995). 인지적 측면에서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인 만족도를 의미하고, 정서적 측면에서의 행복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정서 반응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편향성의 정도로 설명되고 있다(Diener, 2000; Diener & Diener, 1995).

삶의 만족도란 개인의 인지적이고 판단적인 과정(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으로 본질적으로 행복과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행복을 포함한 긍정적 정서 등의 개념이 내포된 주관적 안녕의 상태로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으로 정의하며 이는 행복의 개인적 특수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한성열, 1995). 이러한 삶의 만족감은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높은 삶의 만족감은 높은 삶의 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삶의 만족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즐거움, 행복감, 유능감, 자긍심, 보람, 삶의 의미 등의 긍정적 정서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한성열, 1995). 따라서 높은 삶의 만족도는 당연히 개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반영하고, 낮은 삶의 만족도는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만족, 행복, 긍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반면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진 어머니는 무능감, 무력감, 실망, 좌절 등의 부정적 정서를 바탕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만족감, 행복감, 유능감을 의미하는 부모역할만족도(Bowen, 1982)는 궁극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부모의 안정성과 통제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도현심, 김지신, 1997; 임은자, 이윤형, 2010).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신·문화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개인적 만족감, 복지감과 같은 심리적 복지가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심리적 복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김민정, 1996; 백경숙, 변미희, 2002).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기혼 여성의 출산·양육과 사회참여가 사

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가 성숙기에 들어섬에 따라 자산가치 대비 노동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일반화 등과 함께 현실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의 일에 대한 인식이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변화하면서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Coverman(1989)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더 많은 역할갈등과 역할부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비취업모에 비해 낮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진미정(2003)은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족의 수입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회에 연결되는 통로로 역할을 하여 사회관계망을 넓히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회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쇄하여 개인의 행복도를 높인다고 보았다.

통계청 자료(2005)에 의하면, 국내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의 비율은 75.3%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결혼기와 자녀육아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도 44.9%로 나타났다(김정희, 문혁준, 2006). 상식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직장일과 자녀양육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있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핵가족 구조 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습득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다른 가족원의 도움을 받을 기회는 더 줄어들어 육아는 젊은 부부에게 주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정옥, 이광주, 1988).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영유아 보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맞벌이 가정 지원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 시책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사전 분석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 계획 없이 양적 지원 확대에만 그치고 있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절대다수의 취업모들은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Bandura(1982, 1997)의 자아효능감 개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양육효능감은 대체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최형성, 2002). 또, 안지영(2001)은 양육효능감이 곧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부모역할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자녀 양육과 연관된 어려움도 자신이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양육효능감을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직접적으로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더 나아가 출산 이후 부모의 자아 형성 및 양육에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양육과정에서 발달하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 능력과 같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김현미, 도현심, 2004, 재인용). 즉,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그러나 양육효능감의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이런 상반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어머니의 취업이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여 자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Greenberger & Goldberg, 1989)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들(백종화, 2001; 송미혜, 2006; 안지영, 2001)이 있는가 하면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연구결과(정혜인, 2003)도 발표되고 있듯이 결과가 아주 다양하므로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한편, 양육효능감이 자녀 양육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부모역할만족도는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자녀와의 정서적 만족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부모는 필연적으로 양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맺게 되고 이를 통해 감정적인 만족감, 행복감 및 유능감을 경험하게 된다(도현심, 김지신, 1997). 일반적으로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동기 유발적이고 애정적인 관심을 많이 보이는 반면, 낮은 부모들은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처벌적인 훈육태도로 일관하여 아동의 사회성 및 지적 발달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조영숙, 이양희, 2007 재인용).

Guidubaldi와 Cleminshaw(1989)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일상적 긴장과 갈등 요소와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부모의 전반적인 생활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모-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체계의 긍정적인 형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의 자녀 양육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써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 및 아동의 성격 형성이나 행동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현온강, 1994). 또한 이영(1986)은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양육이라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이며 이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자녀양육에 할애할 관심과 노력이 약화되고, 특히 전통

적인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의 소재가 어머니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부모역할만족도가 낮아 자녀양육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보면, 어머니가 취업한 환경이 부모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취업모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더 나아가 가족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은 준다는 결과(도미향, 2000; 이진홍, 1999; Estes, 2000)와 그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김수란, 2001; 최정옥, 2000)가 상반되게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절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사회 환경변화와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첫 자녀 출산후 양육기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Belsky, Lang, & Rovine, 1985)이며,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지식을 현저히 발달시키는 시기(김수영, 김향자, 이현옥, 허선자, 1996)인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정도와 이들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나아가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D시와 K도에 거주하는 7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7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년 1월 10일에서 1월 3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총 700부를 배부하여 551부(회수율 78.7%)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기재누락이 많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취업모 234부, 비취업모 277부 총 52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취업모 (N = 234)	비취업모 (N = 277)			취업모 (N = 234)	비취업모 (N = 277)
자녀수	1명	51(21.8)	46(16.6)	부학력	고졸이하	29(12.4)	40(14.4)
	2명	170(72.6)	192(69.3)		대졸이하	163(69.7)	213(76.9)
	3명이상	13(5.6)	39(14.1)		대학원이상	42(17.9)	24(8.7)
부연령	30세 이하	7(3.0)	6(2.2)	모학력	고졸이하	38(16.2)	65(23.5)
	31~40세	182(77.8)	217(78.3)		대졸이하	160(68.4)	203(73.6)
	41세 이상	45(19.2)	54(19.5)		대학원이상	35(15.0)	8(2.9)
모연령	30세 이하	15(6.4)	16(5.8)	부직업	무직	3(1.3)	3(1.1)
	31~40세	207(88.5)	242(87.3)		생산·노무자	11(4.7)	25(9.0)
	41세 이상	12(5.1)	19(6.9)		판매·서비스업	33(14.1)	27(9.7)
월수입	200만원이하	12(5.1)	29(10.5)	부직업	사무직	57(24.4)	67(24.4)
	200~300만원미만	27(11.5)	94(34.1)		관리직	28(12.0)	40(14.4)
	300~400만원미만	52(22.2)	72(26.1)		전문직	63(26.9)	63(22.9)
	400~500만원미만	65(27.8)	39(14.1)		기타	38(16.2)	51(18.5)
	500만원이상	76(32.5)	42(15.2)				

2. 측정도구

1) 양육효능감 척도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iband-Wallston Wandersman (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황현자(2005)가 수정한 것을 선정하여 재수정·보완하여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채점체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에 해당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3 문항을 제외하고 추출한 결과, 2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하위요인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6문항), 부모역할 수행능력(4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80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77, 부모역할 수행능력 .72로 나타났다.

2) 부모역할만족도 척도

부모역할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Duke, Rose와 Halverson(1997)의 Parent Satisfaction Scale(PSS)을 서혜영(1998)이 변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PSS는 개인이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부모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부담감,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묻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혜영의 척도를 다시 수정·보완하고 7점 Likert식 척도를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채점체계는 '전혀 아니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에 해당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4

문항을 제외하고 추출한 결과, 3개의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하위요인은 일반적 만족도(13문항), 부모자녀관계(7문항),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6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93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일반적 만족도 .90, 부모자녀관계 .82,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 .75로 나타났다.

3) 삶의 만족도 척도

삶의 만족도 측정에는 윤진(1982)의 생활만족도 척도 총 20항 중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내용이 중복되는 2문항(예, '우울하고 매우 기분이 언짢다', '나는 현재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을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에게 맞게 수정·보완(예, '내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해 보자면, 지금까지의 삶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의 문항을 '지금까지 삶에 대하여 만족한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윤진의 3점 Likert식 척도를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전혀 아니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에 해당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2.0에 의해 수행되었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차이 검증은 t-test,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차이

변인	취업모(N = 234)		비취업모(N = 277)		t값	
	M	SD	M	SD		
인구사회학적 변인	자녀수	1.84	.498	1.97	.554	-2.917**
	월수입	4.75	1.246	3.91	1.263	7.528***
	부학력	2.06	.549	1.94	.478	2.493*
	모학력	2.02	.723	1.82	.640	3.276***
양육효능감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3.48	.497	3.48	.472	-.189
	부모역할 수행능력	3.63	.670	3.57	.650	1.079
부모역할만족도	일반적 만족도	3.88	.533	3.90	.522	-.351
	부모자녀관계	3.86	.519	3.75	.523	2.324*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	3.54	.642	3.40	.634	2.460*
삶의 만족도	3.53	.529	3.39	.576	2.894**	

\* $p < .05$  \*\* $p < .01$  \*\*\* $p < .001$

### Ⅲ. 연구결과

#### 1.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차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변인,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 자녀수( $t = 2.917, p < .01$ ), 월수입( $t = -7.528, p < .001$ ), 부학력( $t = -2.493, p < .05$ ), 모학력( $t = -3.276, p < .001$ )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부모역할만족도 중 부모자녀관계( $t = -2.324, p < .05$ )와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 $t = -2.460, p < .05$ )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삶의 만족도( $t = -2.894, p < .01$ )도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취업모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월수입, 부학력,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모역할 수행능력, 일반적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의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모역할 수행능력, 일반적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의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경우, 월수입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부모역할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상관관계

변인	비취업모										
	1	2	3	4	5	6	7	8	9	10	
취업모	1	1	.002	-.033	-.125*	-.042	-.060	-.031	-.027	-.031	.088
	2	.066	1	.232**	.160**	-.039	.052	.034	-.003	.055	.095
	3	-.124	.353**	1	.380**	-.100	-.112	-.083	-.111	-.065	.069
	4	-.147*	.171**	.257**	1	-.011	-.022	-.002	.011	.008	.062
	5	-.094	.055	.059	-.008	1	.486**	.394**	.470**	.333**	.368**
	6	.088	.085	-.017	-.113	.555**	1	.443**	.472**	.529**	.402**
	7	.049	.113	.025	-.015	.393**	.438**	1	.734**	.581**	.509**
	8	-.009	.033	.029	-.044	.425**	.483**	.783**	1	.582**	.459**
	9	.081	-.022	-.082	-.123	.229**	.470**	.602**	.548**	1	.485**
	10	.074	.259**	.142*	.008	.432**	.440**	.560**	.586**	.456**	1

1. 자녀수 2. 월수입 3. 부학력 4. 모학력 5.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6. 부모역할 수행능력 7. 일반적 만족도 8. 부모자녀관계 9.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 10. 삶의 만족도

\*\* $p < .01$

비취업모의 경우,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부모역할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만족도가 클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나누어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분석시 변인들의 오차항간의 독립성 검증을 위하여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결과 1.895~2.069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계수 VIF값이 1.03~2.61로 나타나 모든 값이 3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모의 경우, 모델 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을 투입한 결과, 월수입( $\beta = .191$ ),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beta = .277$ ), 부모역할 수행능력( $\beta = .265$ )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28.3%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부모역할만족도 하위요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월수입( $\beta = .197$ ),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beta = .193$ ), 부모자녀관계( $\beta = .308$ ),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 $\beta = .172$ )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45.9%로 증가되었다. 모델 2에서 부모역할만족도 관련변인이 추가됨으로써 모델 1보다 설명력이 17.6%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월수입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비취업모의 경우, 모델 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을 투입한 결과, 자녀수( $\beta = .124$ ),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beta = .239$ ), 부모역할 수행능력( $\beta = .303$ )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21.1%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부모역할만족도 하위요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자녀수( $\beta = .123$ ), 부학력( $\beta = .119$ ),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beta = .142$ ), 일반적 만족도( $\beta = .266$ ),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 $\beta = .214$ )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35.5%로 증가되었다. 모델 2에서 부모역할만족도 관련변인이 추가됨으로써 모델 1보다 설명력이 14.4%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

**<표 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취업모		비취업모	
	모델 1	모델 2	모델1	모델2
	$\beta$	$\beta$	$\beta$	$\beta$
자녀수	.073	.070	.124*	.123*
월수입	.191**	.197***	.059	.043
부학력	.072	.071	.103	.119*
모학력	.000	.009	.038	.027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277***	.193**	.239***	.142*
부모역할 수행능력	.265***	.041	.303***	.102
일반적 만족도		.094		.266***
부모자녀관계		.308***		.040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		.172**		.214***
F	16.336***	22.954***	13.889***	17.894***
R <sup>2</sup>	.283	.459	.211	.355
$\Delta R^2$		.176		.144

\* $p < .05$  \*\* $p < .01$  \*\*\* $p < .001$

감이 클수록, 일반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7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 234명, 비취업모 27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양육효능감 척도, 부모역할만족도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고, 결과분석을 위하여 t-test,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 자녀수, 월수입, 부학력, 모학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양육효능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부모역할만족도 중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삶의 만족도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모는 비취업모보다 자녀수가 적었으며, 월수입, 부학력, 모학력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백종화(2001), 송미혜(2006), 안지영(2001)의 결과와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정혜인(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이 실질적으로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 이외에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더 나아가 양육에 투여할 실질적인 시간을 부족하게 한다는 부정적인 영향과, 현대 사회에서 취업이 여성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모는 비취업모보다 부모역할만족도 중 부모자녀관계와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의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유무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에 차이가 없다는 조복희와 현은강(1994)의 결과와 상반되며,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부모역할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된 연구(김정희, 문혁준, 2006; Goldstein & Ross, 1989)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경제적인 보상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성취감이 부모의 역할만족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삶의 만족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취업모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월수입, 부학력,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모역할 수행능력, 일반적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의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수입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부모역할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소득의 증가는 삶의 질을 두드러지게 증가시킨다는 Rogers와 Deboer(200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비취업모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모역할 수행능력, 일반적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의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부모역할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만족도가 클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역할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유준옥, 2010)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일상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취업모와 비취업모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모의 경우, 모델 1에서는 월수입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모역할 수행능력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2에서는 월수입,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

모자녀관계,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월수입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에서 나타나지 않은 월수입이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월수입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조미영, 2000; 유준옥, 2000)를 뒷받침 해 준다. 어머니의 직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안정이 삶의 만족도에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울수록 직업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삶의 만족도가 더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양육효능감보다는 부모역할만족도가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능력보다는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자녀와의 정서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 취업모에서는 비취업모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모역할만족도 중에서도 부모자녀관계가 매우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모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하고 만족스러울수록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비취업모의 경우, 모델 1에서는 자녀수,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모역할 수행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모델 2에서 자녀수, 아버지 학력, 일반적 만족도,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일반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역할갈등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취업모에 비해 자녀수가 많을수록 각각의 자녀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행복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취업모도 양육효능감보다는 부모역할만족도가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유준옥(2000)의 연구에서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혜신(2003)도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는 부모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며, 자녀교육을 일부 담당하는 유아교육기관의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부부가 함께 양육에 동참한다면 분명히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것이며, 앞으로 폭넓은 각도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와 K도에 거주하는 7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기보고로만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좀 더 일반화시키려면, 질문지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방형의 심층면접이나 자녀와의 상호작용 관찰 등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영향변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만족도만으로 한정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사회적 지지나 남편 및 가족의 지원 등 예상 가능한 다양한 변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 ■ 참고문헌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 요인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8(2), 415-442.
- 김민정(1996). 아동가장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문화기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란(2001). 취업모와 비취업모 초등학생 자녀의 정의적 특성비교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 김향자, 이현옥, 허선자(1996). **유아의 사회성 발달**. 서울: 학지사.
- 김인지(2005).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성 이데올로기와 부모역할만족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 이광주(1988).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방법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연구**, 16, 37-59.
- 김정희, 문혁준(200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1), 115-129.
- 김현미,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혜신(2003).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미향(2000).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가족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현심, 김지신(1997). 사회적 지지 및 부모 역할 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6), 127-135.
- 백경숙, 변미희(2002). 보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31, 135-151.
- 백종화(2001).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실태 및 사회적 지지로서 인터넷 이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영(1998).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미혜(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과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준옥(2010). 초등학교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1982). 노인생활만족도 척도 제작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초록**, 26-30.
- 이건홍(1999). 맞벌이 부부 어머니의 자녀 관심도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1986). 취업모와 자녀문제/ 전문직 취업모의 자녀양육 실태- 전문직 기혼여성의 취업실태와 자녀양육현장. **아동학회지**, 7(1), 1-23.
- 임은자, 이운형(2010). 장애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부모역할 만족도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2(1), 1-39.
- 정혜인(2003).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영(2000). 여성의 우울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복희, 현온강(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조영숙, 이양희(200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4), 97-112.
- 진미정(2003).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과 우울 증세간의 인과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7), 169-184.
- 최정옥(2000).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애착안정성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



-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5). **경제활동인구월보**. 서울: 통계청.
- 한성열(1995). 삶의 질과 내재적 동기의 실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95-111.
- 현은강(1994).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현자(2005). 어머니의 심리 특성 및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ndura, A.(1982).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 *Psychological Review*, 37, 122-147.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elsky, J., Lang, M. E., & Rovine, M.(1985).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 second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855-865.
- Bowen, G. L.(1982). Social Network and the Maternal Role Satisfaction of Formerly-Married Mothers. *Journal of Divorce*, 5(4), 77-85.
- Coverman, S.(1989). Role overload, role conflict, and stress: Addressing consequences of multiple role demands. *Social Forces*, 67(4), 965-982.
- Diener, E.(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y*, 55(1), 34-43.
- Diener, E., & Diener, M.(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ke, H. D., Rose, H. A., & Halverson, C. F.(1997). Predictors of parenting satisfaction. Paper presented at 58th NCFR conference, Kansas Cith, Missouri.
- Estes, S. B.(2000). Family-Responsive Workplace Polices, Parenting, And Children's Well-being. University of Iowa, Ph.D.
- Giband-Wallston, J., & Wandersman, L. P.(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Goldstein, K., & Ross, C. E.(1989). The perceived burden of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 504-526.
- Greenberger, E., & Goldberg, W. A.(1989). Work, parenting, and socialization of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22-35.
- Guidubaldi, J., & Cleminshaw, H. K.(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In Fine, M. J. (Ed.), *The 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Inc.
- Rogers, S. J., & Deboer, D. D.(2001). Changes in wives' income: Effects on marital happin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risk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458-472.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접 수 일 : 2011년 2월 28일

심사시작일 : 2011년 3월 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4월 16일